# BIC, 쓰는 자와 읽는 자

회의 장소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나는 곧바로 방 안의 유일한 여자가 매무새를 가다듬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이 내다보이는 창을 모두 닫아 두었다. 거의 수녀처럼.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전혀 다른 영혼의 직업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조정이 논의에 도움이 되었다.

내 주의는 곧장 남자들에게로 옮겨 갔다.

그들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다. 자기 방문에 적힌 직함에 붙은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직원이었다.

이제는 거의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소유주가 아니었다.

나는 짧은 소개와 단순한 관찰로 시작했다.

남자든 여자든 청소 도구를 들고 방에 들어오면, 모두가 곧바로 빗자루가 새것인지 알아차린다. 새 빗자루는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학창 시절의 프랑스어가 도움이 되었다. 다만 오랜 세월 다른 언어들을 써 온 탓에 이따금 발음이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Bing이 내 게시물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바꾸어 Gillette 관련 검색어들 사이에 놓았고, 그 덕에 Wall Street의 애널리스트들이 그것을 보고 미소 짓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Google은 그것을 자기 웹 생태계 안에서 영향력

이 거의 없는 존재로만 다루었다. 러시아의 Yandex로 말하자면, 사실상 그것을 관련성에서 완전히 지워 버렸다.

그런데도 나는 거기 있었다.

내 고향 도시에 서서.

BIC France의 이사회 전체를 내 집 현관문 밖에 둔 채.

Chanel과 함께. 그녀는 이 만남의 유일한 진짜 부가가치로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저 작가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서사의 힘을 이해했다. 갖는다는 것이 소유한다는 것보다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모든 회사의 첫 번째 자원이었다. 현명한 해법은 결코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현명한 해법은 생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다.

떠나기 전에 나는 업무용 가방을 열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참에, 봉인된 꾸러미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펜 열 자루가 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떠날 때까지 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Chanel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디 가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를 하나 쓰고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러 갑니다. 마침내 그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유일한 차이는, 제가 글로 제안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떠난 뒤 그들은 꾸러미를 열었다. 안에서 그들은 펜마다 인쇄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BICGILLETTENARRATIVE.

그것은 단순한 만남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수많은 단순한 것들이 그렇듯,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

*Ferdinando*